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뻗고 있습니다.
 인도불교진흥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돕기)

“눈물에 호소하는 나눔의 시대는 지났다”

NGO단체 후원 부족 활발한 활동이 ‘열쇠’

불교 NGO 중 가장 활동적이라고 평가받는 정토회(대표 유수). 정토회에서는 백일기도나 천일기도 입제 시 매일 천원씩 보시하는 약속을 정해 연간 2억 8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은다. 정토회 1년 예산 35억 기준으로 약 8% 정도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마) 경우 후원금이 한 달에 50만원도 채 넘지 않는다. 10여 개가 넘는 다른 불교 NGO들의 사정도 인드라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

불교 NGO 후원 문화가 척박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다. 인드라마 이정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후원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회 공동체 의식 부족이 불교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개개인의 기부를 위해선 쉽게 지갑을 열지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선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불교 NGO들의 인식 및 노력 부족도 한 요인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참

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단체 프로그램이 불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고객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에 대한 불자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후원 사업 재정 투명성과 피드백(feedback)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토회 장도연 실장은 “사업 시작부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원자들에게 사업 진행 과정이나 성과를 알려줄 때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뤄

진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의 경우는 다른 불교 NGO 보다 후원금이 많은 형편이다. 세만금과 북한산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뛰어든다보니 그 만큼 후원금이 많이 답지한 것이다. 정성은 사무처장은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면 필적수록 후원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인드라마는 후원금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후원받는 것을 선호한다. 능력이나 노력 봉사 등을 후원받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계종 중앙종회에 상정돼 있는 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제정도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아름다운 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는 아름다운 재단 기업사회공헌팀 정경훈 간사는 “눈물에 호소하는 나눔의 시대는 지났다”며 종교 불품을 기부 받아 되파는 ‘아름다운 가게’ 등을 예로 들며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음악이 있는 산사

천지에 가을색이 물들면서 산사에서는 ‘음악회상’이 잇따라 막을 올리고 있다. 문화포교의 총아로 떠오른 산사음악회는 불교와 대중이 열린 가슴으로 만나는 공간이다. 사진은 7일 열린 대구 법랑사 음악회 장면. 대구=박원구 기자

평불협 법타 스님 등 23명 개천절 남북행사에 참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을 비롯해 회원 23명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북한과 해외 종교·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가하는 개천절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 30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 대표단은 직항로를 통해 방북,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갖고 남북합동 문화공연과 통일기원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이번호 20면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 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범종단 ‘불교환경연합’ 출범

추진위 구성 11월말, 위원장 홍파 스님

각 불교종단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범종단 환경기구가 빠르면 11월경 출범한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총지종 보문종 원효종 등 9개 종단과 불교환경연대는 9월 8일 불교환경연합(가칭)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종단협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설립추진위는 첫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결성식에서 11월경 출범하

기로 결의하는 한편, 10여 차례의 준비회의를 열어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안 등 정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향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종단과 각 종단의 신도·신행단체의 추가적인 동참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설립추진위원장 홍파스님은 “자연환경 보존과 생명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 릴레이’ 회향 회룡사서 단식 계속

7월 14일부터 조계종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태고종 천태종 등 범종단적으로 참여한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동노선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기도정진이 57일째인 9월 8일 회향했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우리는 관동도로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됐다”며 “추석 이후 회룡사 스님들이 단식 정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내년 사찰보수 예산 금년 수준

100억 요청, 예산처 51억으로 삭감

국회문광위제출 자료

2004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예산이 문광부가 요청한 10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홍길 의원(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 공무원이 8월 20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찰 재정악화와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당초 187개 사찰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을 마련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차 심의

에서 지원규모를 104개 사찰에 51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7개 사찰을 대상으로 51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예산이 높게 책정됐다”며 “지원한도액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1억원이 적당할 수

준”이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목조건물로 된 전통사찰들의 주요 건축물들은 보수정비 단가가 일반 건축물들에 비해 높다”며 “6천만 원인 지원한도액을 1억원 수준으로 높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9월 22일 시작되는 문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원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찰 재정악화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지원한도액 상향조정과 함께 104개 사찰에 17억 원을 추가한 68억원의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부산·밀양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0월 1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6차 교육이 부산과 밀양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 2003년 10월 1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교육장소: 부산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밀양우체국 정보화교육실(055-354-2801)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현대불교신문사 밀양지사
 지사장 해봉스님 055-353-1196, 017-650-1196
 ■모집 인원: 부산 5명, 밀양 10명
 *부산지역은 11월에도 1일부터 4주간 교육실시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인터넷 ‘다움 카페(Daum cafe)’에 ‘Humble Mind(하심)’라는 불교모임이 있다. 이 모임의 회원 10여명이 추석 연휴기간인 10월부터 13일까지 4일간 계룡산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하루 열 시간 묵언 수행. 추석 연휴동안 가족과 휴가를 뿌리치고 산사를 찾아 용맹정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추석에 용맹정진을 감행(?)한 이유는 일상에 쫓겨 이런 기회(연휴)가 아니고서는 단 며칠간 만이라도 수행에 집중할 여유가

‘추석 정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용맹정진에 대한 이들의 태도다. 추석 정진’을 떠나기 전 이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모임 대표자인 장정운(26, 美

워싱턴대 4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고 하신 성철스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갑니다.” 회원 하정혜씨 “함께 가겠습니다.”

다. 확신을 들고서요.” 회원 양경희씨 “이 추석안거는 여름휴가 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20~30대 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Humble Mind’는 매일 한차

레씩 3천배 철야정진을 해왔으며, 자원봉사활동도 펼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수행 및 신행활동을 해왔다.

‘Humble Mind’의 제1의 원칙은 ‘불교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청년 불교를 활성화하고 외국 불자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청년 불자들의 ‘추석 정진’ 의지가 모든 불자들에게 메아리가 되길 기대한다. cafe.daum.net/humblemind
 한명우(취재1부 차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 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되게 걸어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III-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 종사 1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1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